

영구평화를 위한 초국가주의 역사로의 전환기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 유럽연합 아카이브즈 설립과정과 유럽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노명환**

1. 머리말
2. 유럽공동체 (EC)의 발전과 역사 기록보존소 (Historical Archives)의 형성
 - 1) 유럽통합과 아카이브즈의 의미
 - 2)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의 태동과 발전
 - 3) 유럽대학과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
 - 4) 보존된 기록의 공개와 유럽의식의 확산
3. 독일의 과거사 정리와 유럽차원의 아카이브즈
 - 1) 유럽통합과 독일의 과거사 청산
 - 2)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 설립과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활약 그리고 유럽 전체 통합의 원동력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으로 2009년 5월 20일~2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유럽통합과 독일의 분단·통일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일과제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유럽통합사』, 높이깊이, 2009;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14호, 2006.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기록관리 그리고 그 담당자 아키비스트는 어떠한 사회·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질문이 핵심의 화두다. 기록관리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역사적 증거가 제공되고 공동의 기억 및 의식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 역사변혁을 위해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필자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독일의 유럽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나치 과거사 청산에서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사회·역사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유럽인들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를 전쟁의 원인으로 규명하였고 영구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민족주의(Supranationalism) 또는 초국가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럽통합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유럽, 즉 초국가주의 유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유럽인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카이브즈 역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인 1945년부터 실질적인 유럽통합이 추진되었고 1989-90년 시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현실사회주의가 와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유럽통합은 큰 변동을 겪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는 냉전의 시기로서 유럽통합은 서유럽에 국한되는 서유럽통합이었고 1989-90년 이후부터는 탈냉전시기로서 유럽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과거청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연대로 정의되는 유럽 공동의 미래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유럽통합 과정에서 아

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기억과 이에 기반한 공동의 의식 정립이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의식 정립은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명확한 증거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의 존재 의의와 아카이브즈 운영의 목표가 충분히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유럽통합, 아카이브즈, 아키비스트, 독일 과거사 청산, 정체성

1. 머리말

기록관리 그리고 그 담당자 아키비스트는 어떠한 사회·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기록관리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역사적 증거가 제공되고 공동의 기억 및 의식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사회변동과 역사변혁을 위해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위해 본고에서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사회·역사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탐색해 본다.

유럽통합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파시즘과 나치즘의 범죄적 체제를 경험하던 유럽인들이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정리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연원한다. 그들은 나치체제의 근본 원인으로서 인종주의, 민족주의, 국

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의 역사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하였고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유럽공동체 그리고 세계 공동체를 꿈꾸었다. 이들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를 전쟁의 원인으로 규명하였고 영구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민족주의 (Supranationalism) 또는 초국가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럽통합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유럽, 즉 초국가주의 유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유럽인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였다. 여기에 아카이브즈의 역할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의 초국가주의 역사, 즉 유럽통합사인 유럽공동체의 역사를 유럽인 공동의 기억의 보고로서 그리고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기록화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또한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필수적인 역할이 인식되었고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가 설립되는 배경으로 이어졌다.

유럽에서 아카이브즈 (Archives)는 본래 공동체의 자연스런 행정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된 후에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선별된 기록들과 이 기록물관리기관을 의미했다. 이러한 기록관리 활동을 통해 유럽인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집단기억과 이에 기초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유럽의 아카이브즈 역사는 실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한다. 봉건제와 왕정 시대에는 영주와 왕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했고 민족주의 시대에는 민족국가 만들기에 그리고 제국주의를 정당화 하는데 동원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의 태동과 시민들의 민주사회의 문화적 삶의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의 시대에 다시 아카이브즈는 이러한 시대의 가치에 부합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인 1945년부터 실질적인 유럽 통합이 추진되었고 1989-90년 시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현실사회주의가 와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유럽통합은 큰 변동을 겪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는 냉전의 시기로서 유럽통합은 서유럽에 국한되는 서유럽통합이었고 1989-90년 이후부터는 탈냉전시기로서 유럽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본고의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냉전시기에 서유럽에 국한된 유럽통합과정에서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가 형성·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리한다. 둘째, 탈냉전시기에 통일된 독일의 아키비스트들이 동유럽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나치시대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진정한 초국가주의 유럽전체의 통합에 기여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유럽차원의 과거사 청산 활동은 무엇보다도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의식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과거사 청산의 과정과 내용은 유럽통합의 형성·발전과 밀접한,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전후 독일의 역사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다시 말해 제 2차 세계대전의 과거사 정리를 위한 독일의 이같은 노력은 유럽통합의 구현을 위한 유럽 공동의 노력과 맞물려 설명될 수 있다. 유럽인들은 각국의 아카이브즈에 힘입어 제 2차 세계대전 중의 가해와 피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여기에서 나치 전범국이었던 독일의 노력이 매우 각별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본고를 집필하면서 동아시아인들이 공동의 과거사 정리에 기반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를 논하고 준비하고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의 아카이브즈 구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국의 분단 극복을 위한 아카이브즈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2. 유럽공동체 (EC)의 발전과 역사 기록보존소 (Historical Archives)의 형성

1) 유럽통합과 아카이브즈의 의미

유럽통합을 위한 사상들은 중세시대 이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유럽인들은 각국의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촉발된 두 번에 걸친 전대미문의 대 전쟁을 겪고 나서 초민족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유럽통합을 시작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항한 저항운동 기관지들에는 유럽통합을 전제하는 다양한 사상들이 개진되었다.¹⁾ 이러한 유럽통합 사상들을 반영하는 기록들은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의 주요 기록유산을 구성하고 있다. 이 기록유산은 파시즘과 나치즘에 저항하면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으로 새로운 유럽을 내다보았던 그 시대의 정신을 생생히 담아 전후 유럽 공동의 기억과 가치관 형성의 원천으로

1) 이에 대한 사료집으로서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Vol. I and II.

자리 매김 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럽통합의 한 주요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유럽통합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도 주요 원천이 되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영구평화의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즉, 전쟁의 원인으로서의 과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구조적 원인을 청산하며 유럽공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유럽인들은 인종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파시즘의 집단 가치관을 전쟁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나치의 범죄를 규명하고 이를 청산하는 것이 유럽인들에게 급선무였다.²⁾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억의 공동체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초국가주의 그것으로 전환시키고 유럽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유산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유럽인들은 새로운 유럽인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유럽차원에서 공동의 기록유산에 기반한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구상하게 되었고 유럽통합 사상의 기록들을 편집, 출간하게 되었다.³⁾

전후 냉전시대의 현실에서 유럽통합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좌절 그리고 결실의 전 과정은 당시의 기록들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회를 창설하려던 노력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조직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과정, 유럽통합의

2) 이러한 관점은 나치에 저항한 독일 지도자 피르델러의 문헌들에서 잘 나타나 있다. Carl Goerdeler: 'Germany's future tasks' 1-8 August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I,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p. 445-446.

3) 이들 기록 중에 일부는 위에서 소개한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로 편집·출간되었다.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 관한 역사 등이 당시의 기록들에 생생하게 기록화 되어 있다. 1950년대 초부터 6개국이 참가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을 계기로 시작된 실질적인 유럽통합은 초국가주의의 신념과 가치가 반영된 유럽 공동의 역사의 진정한 출발이었다.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내에서 초국가주의를 상징하는 최고관청(High Authority)의 존재 그리고 1957년 로마조약을 거쳐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창설되고 1965-67년 합병조약을 통해 유럽공동체(EC)가 형성되는 과정 등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소위 민족국가 중심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유럽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⁵⁾ 1973년부터 시작된 EC의 확대과정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의 단일유럽의정서의 성립, 1990년대 초 단일시장의 창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한 유럽연합(EU)의 형성, 단일통화 유로(Euro)화의 도입 등에 관한 역사도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에 담겨져 있다. 오늘날 이 기록들을 보존 관리하는 기능은 유럽공동체(유럽연합) 역사기록보존소(EU Historical Archives)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유럽인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긴밀한 관련을 형성하였다. 유럽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여러 수단들이 상정된 가운데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는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검증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가 유럽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 축으로서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4) 이에 대해서는 Wilfried Loth, *Der Weg nach Europa. Einführung in die Europäische Integration 1945-1955*, Göttingen 1990 을 참조; Hans Hofmann (ed.), *Opening of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 the Public*,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83, p. 5-23.

5) Hans Hofmann (ed.), op. cit., p. 27-46.

확인하게 해준다.⁶⁾

유럽통합의 과정이 심화되면서 유럽인 공동의 정체성 형성이 라는 과제는 보다 화급하고 필수적인 사안이 되어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성립 이후 실제로 이 과제는 유럽통합 정책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얻게 되었으며 그 속에는 공동의 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인 공동의 경험과 이에 따른 집단기억의 축적이 자리하고 있었다.⁷⁾ 1950년대 초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인들은 초국가주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당시의 생산된 기록들에 투영되어 있는데 이들은 유럽통합을 추구해 온 유럽인들의 집단 기억과 정체성을 위해 주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유럽통합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 형성과 발전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의 태동과 발전

유럽공동체 역사기록관의 형성, 관리기능 그리고 활용기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보존의 기능은 기록들이 생산된 시점을 계기로 유럽공동체의 각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카이브즈들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유럽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아카이브즈를 구축하자는 것에

6) 오동석,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 민족주의·초민족주의와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의논문 (2008. 2), 56-57 쪽.

7) 노명환,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한국외대 출판부 2001, 151 쪽.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오드랜드 (Christopher Audland)가 있었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1973년⁸⁾, 유럽집행위원회⁹⁾는 당시 하나이던 부사무총장 (Deputy Secretary-General) 직을 추가로 신설하고 이 자리에 오드랜드를 임명하였다.¹⁰⁾ 그는 집행위원회 조직 운영의 현대화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 그는 현용기록(current records)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효율적인 현용기록 관리를 통해 집행위원회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또한 이 기록들이 유럽통합의 역사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료들로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기록관리 제도(archival system)의 정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오드랜드는 이렇게 잘 관리된 기록들이 추후에 유럽 공동의 집단 기억과 이에 기반한 유럽정체성을 함양하는데 매우 유익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¹¹⁾ 그는 1984년 6월 28일 유럽집행위원회의 역사기록관의 기록들이 공개되는 기념식에서 쏰 (Gaston Thorn) 위원장이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는 “유럽공동체 역사연구를 진작시키고 (to encourage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the

8) 이리하여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9) 1952년 석탄철강공동체 (ECSC) 가 가동되기 시작하였을 때 최고관청 (High Authority)이 중앙의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57년의 로마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유럽경제공동체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창설되고 1967년 이 세 기구가 합병되어 유럽공동체가 (EC)가 되었을 때부터 유럽집행위원회가 중앙 집행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73 - 1977 시기의 위원장은 오르톨리 (Francis Ortoli) 였다.

10) Christopher Audland,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Union: Their Opening to the Public, Management and Accessibilit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 (2007), p. 179.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가 설립되는 데는 Christopher Audland와 다음에 설명할 Hans Hofmann 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11) Christopher Audland, op. cit., 179-180.

Communities); 유럽통합의 전개에 대한 유럽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to promote public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유럽 각 기관들의 행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working of the institutions), 그래서 이는 “유럽의 생명의 피의 놀라운 체현이다 (an astonishing illustration of the very lifeblood of Europe)” 라고 말한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¹²⁾ 그는 “유럽공동체 기관들 간의 서비스 그룹 (Inter-Service Group)”을 책임지는 위원장에 임명되었고, 이 지위를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확충하였다. 당시에 기록들은 각 기구별로,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오드랜드는 이 모든 기록들이 각 기구들 기록관에서 수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동시에 이 기록들이 유럽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역사기록보존소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30년의 비밀보존 연한이 지나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또한 제안하였다. 같은 목적에서 그는 유럽공동체 차원의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오르톨리(Francis Ortoli)에 이어 1977-1981년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한 켄킨스(Roy Jenkins)는 오드랜드가 추진하는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 제도화 작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의 후임자인 쏰(Gaston Thorn) 위원장도 역사기록보존소의 설립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¹³⁾ 그 결과 1983년 2월 1일 유럽공동체 기록관리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유럽공동체의 기록관리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실로 험난한 길이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유럽공동체 각 회원국들의 기록관리 제도와 법이 다양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비밀보존

12) Christopher Audland, op. cit., p. 187.

13) 1981-1985 년의 기간에는 쏰 (Gaston Thorn) 이 집행위원장 직을 수행했다.

기간도 각 회원국에 따라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오드랜드는 유럽공동체의 경우 역사기록물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0년 비밀보존 연한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¹⁴⁾ 여기에서 한 가지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유럽공동체 기록관리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들의 국립기록보존소 소장들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회합했고 유럽차원의 기록관리 표준들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유럽통합이 실현되어 가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록평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가 큰 역할을 하였다. ICA는 유럽공동체 기구에 역사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과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여러 표준과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청하였다.¹⁵⁾

오드랜드 이외에도 1979년 독일인으로서 유럽집행위원회 역사기록관장으로 초빙된 호프만(Hans Hofmann) 교수는 유럽공동체 역사기록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역사학자이며 아키비스트(Archivist)로서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로마의 독일사연구소에서 그리고 바티칸 비밀기록보존소에서 수많은 경력을 쌓았다.¹⁶⁾ 그는 유럽집행위원회 기록관의 관장으로서 유럽공동체의 기록관 창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유럽 각국의 국립 아카이브즈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취해 나갔다. 무엇보다도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럽집행위원회를 설득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유럽공동체 기록관의 원칙들과 표준화 그리고 기

14) Christopher Audland, op. cit., p. 181.

15) Christopher Audland, op. cit., p. 181-82.

16) Christopher Audland, op. cit., p. 180-81.

기록물 공개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유럽대학과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럽공동체의 역사기록관이 유럽대학(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EUI) 안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97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 설립된 유럽대학은 유럽정신의 함양과 지도자의 육성을 위해 유럽통합의 역사와 행정조직들의 역사를 가리키는 연구·교육 기관이었다. 유럽대학 안에 유럽공동체 역사기록관을 설치하는 것은 유럽대학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데서 기인하였다. 유럽통합의 역사연구와 유럽인 공동의 집단 기억을 형성시키는데 있어 유럽공동의 기록들 보다 더 효율적인 수단은 없었던 것이다. 역사기록물을 통해 유럽인 공동으로 유럽통합의 배경, 원동력, 구조적인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통합사를 비롯하여 유럽공동체의 정치, 경제 및 제반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 역사기록보존소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유럽공동체 기록물의 공개 필요성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호프만은 “유럽 역사기록관은 유럽통합의 정신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역사적 진실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강조하였다.¹⁷⁾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기록관이 유럽인 의식을 함양하는데 대단히 효율적인 수단으로 상정되었음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래 각 회원국들은 자국에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를 유치하고 자신들의 지역에 존재하는 유럽공동체 기구 기록관들의

17) Hans Hofmann, *Opening of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 the Public*,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83, p. 6.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공동체의 역사기록보존소를 피렌체의 유럽대학(EUI) 안에 설립하는 것에 합의 하여 1976년부터 이곳에 존속시키게 했다.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가 유럽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어느 회원국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 역시 중요한 유럽통합 역사의 한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이익을 넘어 유럽 공동의 대의가 관철된 과정이었다.¹⁸⁾

4) 보존된 기록의 공개와 유럽의식의 확산

1977년부터는 오드랜드와 호프만을 비롯한 여러 관련자들이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 기록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1952년부터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이때에 생산된 기록들은 1980년대 초가 되면 공개제한 기간, 즉 비밀보존 연한인 30년을 마감하기 때문이었다.¹⁹⁾ 이제 이 기록들이 공개되면 이는 유럽통합의 시대에 유럽인들에게 공동의 기억과 이에 기반한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데 매우 유익한 자원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결과 1983년 2월 1일과 8일 집행위원회가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 운영과 기록물공개에 대한 규칙을 공포하고²⁰⁾, 각료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유럽대학(EUI)과 함께

18) Christopher Audland, op. cit., p. 183-86.

19) Jaitner, K.J., "The European Community Historical Archives in Flore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9 (1988), p. 177; Hans Hofmann, op. cit., p. 5.

20) Commission Decision No 359/83/ECSC of 8 February 1983 concerning the opening to the public of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84년 12월 17일 세부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²¹⁾ 그리하여 1984년 12월 17일 유럽공동체는 역사기록보존소가 유럽공동체 역사와 관련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고 공개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침들을 제정할 수 있었다.²²⁾ 유럽대학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재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1985년 12월부터는 유럽시민들이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²³⁾

1980년대 초반에 역사기록보존소의 기록물 공개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데에는 석탄철강공동체의 첫 기록들이 30년의 비밀보존 연한 마감시기에 이르렀다는 사실 외에, 1983년에 유럽공동체 정상들이 발표한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엄숙한 선언' 등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을 가속화시키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특히,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가 성립되어 단일시장 창설이 가시화되면서 유럽공동의 시민권 개념과 더불어 유럽정체성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단일유럽의정서에서 합의한 단일시장은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가 국경을 자유롭게 초월하는 유럽단위의 단일시장을 의미했다. 특히,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유럽시민권 개념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유럽 공동의 정체성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점차적으로 '유럽의 도시'가 지정되고 '유럽의 날 (5월 9일)'이 제정되었으며, '유럽 기'와 '유럽 가'의 제작에 이어 유럽 공동의 교환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유럽공동의 문화유산인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이 유럽 공동의 기억을 진작시키고 유럽정체

21) Jaitner, K.J., "The European Community Historical Archives in Flore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9 (1988), p. 177.
22) Christopher Audland, op. cit., p. 187-88.
23) Christopher Audland, Ibid..

성을 함양하게 하는 최선의 방책의 하나로 채택될 수 있었다.²⁴⁾ 이 정책은 무엇보다도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된 유럽통합의 역사를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들의 열람을 통해 연구·서술하여 유럽 공동 기억의 원천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또한 유럽 공동의 정체성 형성의 지름길이었다. 아울러 유럽통합에 헌신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 관리 그리고 공개하는 것도 크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²⁵⁾ 초민족주의 혹은 초국가주의적인 성격의 유럽통합을 위해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일면 민족주의 도구로서 아카이브즈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볼 때,²⁶⁾ 그 역할의 혁명적인 변화를 함축한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고 유럽연합이 형성된 후에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는 유럽연합 역사기록보존소로 개칭되었다.

3. 독일의 과거사 정리와 유럽차원의 아카이브즈

1) 유럽통합과 독일의 과거사 청산

앞장에서 유럽통합이란 유럽의 영구평화 정착을 위해 민족주

-
- 24) 일찍이 유럽통합을 주장했던 나폴레옹이 유럽차원의 기록보존소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 25) 유럽통합은 단일시장 창설을 확인한 단일유럽의정서가 성립된 1986년 이전까지 경제적 협력에 의거하여 정치적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신기능주의 전략을 구사하였고 1986년 이후부터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 26) 트러디 피터슨 (이상민 역), “민족주의와 기록보존소에 관한 불쾌한 진실”, 기록학연구, 4 (2001).

의에서 초민족주의로 이행하는 과거사 청산 프로젝트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과거사 청산 작업의 핵심에 독일의 과거사 반성과 정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극단적으로 왜곡된 민족주의의 한 형태인 나치의 조직적 범죄가 자행된 중심무대였던 독일은 이의 청산이 전후에 시급한 과제였다. 전후 분단된 독일에서 서독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서독인들은 유럽통합에 적극적이었다. 그들의 적극적인 과거사 청산 의지는 초국가주의에 기반하여 유럽통합의 작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한 원동력이었다. 유럽통합은 궁극적으로 유럽에서 독일의 그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운동이었기에 그 의미가 특별히 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치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독일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유럽, 즉 평화를 위한 유럽통합의 전제조건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아카이브즈는 그 반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공동의 과거사 정리를 위해 그리고 그에 기반한 미래를 향한 진실한 공동의 기억을 위해 과거사에 대한 사실적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역사기록관들이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⁷⁾ 즉,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기록이 필요하고 특히 그 불행한 과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독의 아키비스트들은 다른 유럽의 아키비스트들과 협력하는데

27) Oldenhage, Klaus, Prosecution, Resistance, Compensation, Reconciliation and Democratisation. The Heritage of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The Case of German Archives, 2005년 8월 발표문; 이진모, 과거청산과 기록관리에 대한 외국 사례.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기록관리 사례조사,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노명환, 「냉전시기 분단국에서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아카이브 역사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2집 (2009), 218-221 쪽.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아카이브즈를 창설하는데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유럽통합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서독이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증으로서의 아카이브즈 기록들은 독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럽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왜냐하면 나치범죄가 유럽전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독일의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럽차원의 아카이브즈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차원의 아카이브즈 네트워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는 서독의 경우 냉전에 따른 분단의 현실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냉전시대에는 유럽통합도 서유럽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²⁸⁾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의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1990년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유럽통합은 그동안의 서유럽을 벗어나 유럽전체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는 유럽연합 (European Union)으로 변모하였다. 이때에 통일된 독일은 나치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전 유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동유럽 지역에 대한 나치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었다. 여기에서 독일의 기록관리 기관들과 아키비스트들이 중대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2000년 8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 설립은 이러한 움직임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28) Oldenhage, Klaus, Prosecution, Resistance, Compensation, Reconciliation and Democratisation. The Heritage of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The Case of German Archives, 2005년 8월 발표문.

2)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 설립과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활약 그리고 유럽 전체 통합의 원 동력

2000년 8월 독일에서 연방법에 근거하여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이 설립된 것은 독일의 과거사 청산 역사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재단이 설립되는 때는 1969년에 제정된 인종 학살 범죄에 대한 시효 완전 폐지 법령이 크게 작용하였다.²⁹⁾ 왜냐하면 이 법령 덕분에 2000년이라는 시점에서도 과거사청산을 위한 재단이 설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재단의 활동은 유럽통합의 질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 재단의 역할은 독일과 유럽의 아카이브즈들의 협력 하에 나치 범죄에 대한 기록들을 발굴·수집·정리하여 불행한 과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복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과거청산의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즉, 동유럽 지역을 포함하는 유럽차원의 기록관리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상호 협력하여 과거사 청산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증거에 바탕하여 가해와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배상과 보상을 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 재단의 활동은 진정한 유럽차원의 공동의 기억과 의식 그리고 정체성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동안 서유럽의 통합에 기여하던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유럽 전체의 통합에 기여하게 되었다.

29) 송충기, 「사법적 청산에서 역사적 성찰로: 독일의 사례」, 안병직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40-77 쪽.

여기에서 유럽의 아카이브즈들이 온라인을 통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유럽차원의 가상 아카이브즈 형성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유럽 각국의 아카이브즈들이 유럽의 대의 아래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리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아카이브즈들의 연대 활동은 유럽과 세계인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한 의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앞장에서 설명한바 유럽에서 전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초국가주의의 평화와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아카이브즈의 노력과 연계되어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오고 있다.

서독과 동독이 나름대로 과거사청산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동유럽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폭넓은 유럽차원에서 기록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보상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나치시대에 동유럽지역에서 강제노역 동원이 많은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록을 통한 입증에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던 특히, 동유럽 지역의 강제노역자들을 위한 입증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운동들이 독일에서 전개되었다. 나치 독재체제하에서 실시된 강제(노예)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은 입증할 만한 사료나 믿을 만한 진술을 제시해야 했다.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독일 연방기록보존소, 바드 아롤젠 (Bad Arolsen) 에 본부를 둔 국제검색기관 (Internationale Suchdienst), 그리고 쾰른 (Köln)에 본부를 둔 나치의 박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 및 상담 연맹이 “나치시대 강제 노동자들의 입증문서조달” 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

신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관련 기록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 주의 기록관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³⁰⁾

각 주의 기록관들과 연방기록보존소가 2000년 10월 10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강제 노역자들의 입증 문서 조달을 위해 통일되고 체계적인 작업을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2000년 11월 30일에는 연방정부, 헤센의 주정부,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 국제검색기관, 나치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와 상담 연맹, 각 주의 기록관들, 독일 아키비스트 협회, 교회, 지역공동체, 그리고 일부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작업의 기본원칙과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 이는 독일의 거의 전 아카이브즈들이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55년이 지난 2000년의 시점에서 독일의 과거청산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³¹⁾

자신의 고향에서 피해 사례에 대한 입증문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을 통해 바드아롤젠 (Bad Arolsen) 에 본부를 둔 국제검색기관에 추가적으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입증기록들이 발견되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으로 넘겨졌다. 국제검색기관이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정보 자료 (elektronische Datensatz)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검색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이 사안을 이송하였다. 각 사안을 적소에 배치시키기 위해

30) Hans-Dieter Kreikamp, Nachweisbeschaffung für ehemalige NS-Zwangsarbeiter/innen. In: Mitteilungen aus dem Bundesarchiv 3 (2002), p. 28-31.

31) Ibid..

연방 차원의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각 주 정부에 협력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협력센터는 각 주들 중에서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2001년 2월 28일에 레마겐 (Remagen)에 위치한 IT 전문회사인 오센베르그 & 슈나이더 (Ossenbergr & Schneider)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덕분에 봉사자들은 자신의 작업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사례와 기록들을 편리하게 열람하고 검색 및 입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기관이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우편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의 부담을 현격히 줄일 수 있었다. 주 협력센터 이외에도 중앙 국가 기관들, 예를 들어 독일 국방안내소 같은 관청, 연방광부조합 혹은 연방철도자산 및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 행정부서도 가담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강제징병 기록, 광산 분야에서 강제노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록들, 독일 제국철도에서의 강제노역 상황을 나타내 주는 기록들을 제공해 주었다. 입증문서 조달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점점 더 많은 과제들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지역 협력센터들이 설치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군과 면 단위의 아카이브즈들이 이 전자기록관리 네트워크에 합류하였다.³²⁾

여기에 또한 주 보험관청들, 개개의 대기업 아카이브즈, 예를 들어, 다이믈러-크라이슬러 (Daimler-Chrysler), 지멘스 (Siemens), 크룹 (Krupp), 만네스만 (Mannesmann), 회쉬 (Hoesch), 데구사 (Degussa) 및 슈트트가르트와 파사우에 있는 교회의 검색기관들이 아카이브즈 연맹에 또한 가담하였다. 여기에 몇몇의 기념장소, 추모지 및 기념관, 예를 들면 작센하우젠 (Sachsenhausen), 라벤스브뤼크 (Ravensbrueck), 노이엔가메 (Neuengamme)에 있는 추모지들이 참여

32) Ibid..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300개 이상의 아카이브들이 온라인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증문서 조달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만족할 만한 아카이브즈 네트워크가 수립되었다.³³⁾

같은 맥락에서 유럽 차원의 아카이브즈 연맹이 발전하였는데 이 가운데 폴란드와 독일간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였다. 독일 아카이브즈에서 검색할 수 없는 이전의 독일 지역으로 현재에는 폴란드 영토인 오더 (Order)와 나이세 (Neisse) 강 동쪽지역의 증거 검색 요청들에 응하기 위해 폴란드 아카이브즈들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바르샤바에 한 개의 협력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2003년 2월 1일에 이루어진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실현되었다.³⁴⁾ 2004년 현재까지 폴란드에 있는 24개의 아카이브즈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차원의 전자 기록관리 입증 시스템에 연계되었다.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는 매우 의미 깊고 고무적인 협력이었다.³⁵⁾

아카이브즈 연맹의 “나치 시대 강제 노동자들의 입증문서 조달” 프로젝트는 거의 3년 반의 활동을 끝으로 2004년 말에 종료되었다. 2004년 11월 16일까지 고향이나 국제검색기관에서 어떠한 입증 기록도 찾아내지 못했던 총 414,076 건의 이전 강제노동자 혹은 그들의 가족/친척들의 신청이 처리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배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강제 징용자들에게 재정적인 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역사적 숙명인 나치 체제의 협력자란 혐의를 벗겨주는 일이었다. 즉, 그들을 나치 체제의 피

33) Ibid..

34) Kreikamp, Hans-Dieter, Polisch-Deutsche Zusammenarbeit bei der Nachweisbeschaffung für ehemalige NS-Zwangsarbeiter/innen, Comma 2004 (3-4), p. 191-196.

35) Ibid..

해자로 인정받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복권시켜 주는 일이었다. 이러한 유럽차원의 과거청산은 유럽인들이 정의와 평화와 연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중대한 기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아카이브즈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유럽차원의 아카이브즈 국제연대는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은 동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며³⁶⁾ 2004년 5월부터 폴란드와 헝가리 등 중·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은 명실 공히 유럽 전체의 통합기관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서유럽에 의한 동유럽의 식민화라고 하는 과정, 독일 나치에 의한 동유럽 유린 등을 생각할 때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단”은 서유럽과 동유럽이 화해할 수 있는, 특히 독일과 동유럽이 화해하며 소위 ‘독일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상황발전은 또한 공동으로 유럽연합 아카이브즈를 전 유럽차원에서 활력있게 발전시킬 미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 유럽 차원에서 민족주의 역사, 제국주의 그리고 파시즘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공동의 정체성을 함양하며 유럽 통합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연합 아카이브즈 그리고 유럽 차원의 아카이브즈 연대 등이 진정한 유럽통합에 필요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더욱 주목해 볼 일이다.

36) 노명환,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한국외대 출판부 2001, 213 쪽.

4. 맺음말

유럽통합의 역사 속에서 창설된 유럽공동체 아카이브즈의 설립 배경과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유럽통합에 필수적인 유럽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아카이브즈의 역할이 어떻게 상정되고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독일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연대로 정의되는 유럽 공동의 미래상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또한 조명하였다.

이렇게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사회·역사의 변혁기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공동의 기억과 이에 기반한 공동의 의식 정립이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의식 정립은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명확한 증거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의해 가능하다. 중층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삶에 대한 증거와 기억을 통해 공동의 의식과 정체성을 함양하면서 사람들은 추구하는 인간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 하며 여기에서 기록의 보존과 활용이 크게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의 존재 의의와 아카이브즈 운영의 목표가 충분히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키비스트들의 기록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활동에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키비스트들은 특정 사회의 증거와 기억 그리고 의식과 정체성이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구되는 인간 사회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고도의 가치판단 문제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아카이브즈가 설립되는 추동력은 전쟁의 원인으로 민족주의 공동체에 대한 반성과 평화의 담지자로서 초민족주의 유럽공동체를 지향하는 열정에 기초했다. 이 과정의 역사에 대한 증거와 기억을 통해 지향하는 유럽통합의 공동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근본적인 추동력인 것이다. 오드랜드 그리고 호프만 같은 인물들이 이러한 상호 맥락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유럽적인 차원에서 독일의 나치 과거사 청산에 헌신하는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노력도 증거를 통해 과거의 문제를 현재 속에서 해결하고 새로운 공동의 기억과 의식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역할은 진정한 화해와 평화 속에서 유럽 전체의 통합을 견인하는데 중차대한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경우를 음미하면서 분단된 한국과 갈등으로 점철된 동아시아에서도 진정한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의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증거와 기억 그리고 공동의 의식과 정체성에 기반한 진정한 공동체의 정립은 또한 현재 학교, 종교단체, 회사 그리고 국가 내 지방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구되어 지고 있다. 그 공동체 정립의 가치 지향점이 어디에 두어지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아키비스트들은 어떠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가? 아키비스트들은 이 의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깨어 있는 가치판단 능력과 그와 맥을 함께하는 업무 기술을 요구받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Audland, Christopher,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Union: Their Opening to the Public, Management and Accessibilit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 (2007).
- Hofmann, Hans, *Opening of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 the Public*,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83
- Jaitner, K.J., “The European Community Historical Archives in Flore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9 (1988)
- Kreikamp, Hans-Dieter, “Nachweisbeschaffung für ehemalige NS-Zwangsarbeiter/innen”. *Mitteilungen aus dem Bundesarchiv* 3 (2002), p. 28-31.
- Kreikamp, Hans-Dieter, “Polisch-Deutsche Zusammenarbeit bei der Nachweisbeschaffung für ehemalige NS-Zwangsarbeiter/innen”, *Comma* 2004 (3-4), p. 191-196.
- Oldenhage, Klaus, “Prosecution, Resistance, Compensation, Reconciliation and Democratisation. The Heritage of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The Case of German Archives”, 2005년 8월 발표문.
- 노명환, 「냉전시기 분단국에서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아카이브 역사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2집 (2009)
- 노명환,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한국외대 출판부 2001
- 송충기, 「사법적 청산에서 역사적 성찰로: 독일의 사례」, 안병직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40-77 쪽.

이진모, 「과거청산과 기록관리에 대한 외국 사례.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기록관리 사례조사,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오동석,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 민족주의·초민족주의와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2)

ABSTRACT

The Role of Archives and Archivists in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into Supranationalism from Nationalism for the Purpose of Permanent Peac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European Community Archives and the Activities of the German Archivists for the Redressing the Common European Past

Noh, Meung-Hoan

This paper has two aims (1) to address the common European past by way of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official archives of the European Union; and (2) to give specific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archivists in Germany.

The EU archives contain the all the documents officially recording the common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in 1951. It was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thirty years after the production of these documents, however, that the Archives of the European Community (EC) began to be systematized for public use when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n Florence in Italy was chosen as the deposit location for the archive. After the coming into effect of the Maastricht Treaty in 1993, the EC Archives were renamed as the EU Archiv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each Member State of the EU with this EC Archives common norms regarding deposit were developed. This archives is a veritable gold mine for serious research into all and any official aspect of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history

of today's EU, so for the formation of common European identity.

The denazification process using the evidence of the archives contributed to the orientation of the New Germany towards Europe. The German archives then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redressing the past to a significant degree si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More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the “Memory,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 in 2000 in Germany made possible cooperations with the archives of the East European countries and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the providing evidence about former enforced workers under the Nazi regime. There has thus been developed European-wide networks among archives. These developments have furthered the common redressing of the European past and this process in turn has been contributing the enhancing the European spirit and identity.

The thesis of this paper then is that historical research based on the EU archives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can not only illuminate in great detail the stages of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to date. The dissemination of such research can itself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the spreading of supranational ideas beyond Europe to other regions of the world.

Key words: European Integration, Archives, Archivists, German Redressing of Past, Identity